카카오 '카나나', 해외모델 수준 구현 韓 LLM 성능평가 리더보드 1위 차지

국내 프롬스크래치 모델 중 최고점
한국어 문맥이해, 추론 등 높은 점수
국산 LLM 자립화 첫 전환점 평가

카카오의 독자 개발 AI 모델 '카나나'가 한국어 거대언어모델(LLM) 성능 평가에서 국내 최고 순위를 기록하며, 한국어 특화형 초거대 언어모델의 기술 자립 가능성과 산업적 경쟁력을 입증했다.

카카오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 카나나가 LLM 성능 평가 리더보드에서 국내 프롬 스크래치(기존 자료나 경험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 형태의 모델 가운데 최고 순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의 카나나-1.5-32.5b-인스트럭트-2504 모델은 미국 AI 플랫폼 웨이트앤바이어스가 운영하는 한국어 LLM 평가 시스템 호랑이 리더보드에서 종합 0.7879점을 기록하며 국내 독자 개발 모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호랑이 리더보드는 한국어 범용 성능, 정렬성, 정보 탐색 능력 등을 평가해 언어모델의 한국어 실질 유용성을 비교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평가 지표다. 이번 성과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프롬스크래치 모델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글로벌 상위 모델과 대등한 성능… 한국어 환경 최적화 구조

카나나는 번역과 정보 검색 영역에서 오픈AI의 o1 모델을 상회하는 성능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어 문맥 이해, 정보 추론, 문장 생성의 일관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렬성 평가에서도 응답의 정확성과 안정성이 우수해, 사용자 신뢰도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모델은 해외 거대 모델을 파인튜닝하지 않고, 모델 구조부터 데이터셋, 학습 프로세스까지 모두 독자적으로 구축한 프롬 스크래치 구조를 채택했다. 카카오는 한국어 데이터의 문법, 어휘, 어순 특성에 최적화된 학습 체계를 설계하고, 실제 서비스 트래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효율 병렬처리 구조를 구현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모델 대비 연산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품질 저하 없이 실시간 반응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AI 생태계 내 자립형 기술 모델의 신호탄

업계는 이번 성과를 카카오가 보여준 '국산 LLM 자립화의 첫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어 특화 데이터셋을 독자 구축한 모델이 글로벌 기준에서 검증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AI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카카오의 기술 축적은 향후 공공·금융·교육 등 분야별 맞춤형 AI 서비스 확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카나나 모델이 보여준 정보 탐색과 정렬성의 안정적 성능은 한국어 기반 산업에서 생성형 AI 도입을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산업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의 AI 기업들은 대형 외국 모델을 활용해 서비스 레벨을 맞춰왔지만, 이번 결과는 국내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대형 언어모델을 자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나나는 한국어와 영어 모두에서 강력한 성능을 보이는 초거대 범용 언어모델"이라며 "대규모 서비스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 고도화 중인 카나나 2.0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크래프톤, 'AI 퍼스트 기업' 체계전환 선언

1000억 투입해 GPU 클러스터 구축
구성원 AI 툴 직접활용 환경 마련도
인사제도·조직 운영 체계 개편

크래프톤이 인공지능(AI)을 기업 운영 전반의 핵심 전략으로 선언하며, 'AI 퍼스트' 체계 전환과 대규모 투자를 본격화했다.

크래프톤은 23일 사내 소통 프로그램 크래프톤 라이브 토크를 통해 'AI 퍼스트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김창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에이전틱 AI를 중심으로 업무를 자동화하고, 구성원은 창의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경영 체계를 본격화하겠다"며 "AI를 통해 구성원의 성장을 촉진하고 조직의 도전 영역을 넓히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AI 퍼스트는 AI를 문제 해결의 중심이자 최우선 수단으로 삼는 경영 전략이다. 크래프톤은 이를 통해 전사 생산성과 기업가치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AI 중심 기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회사는 약 1000억원을 투입해 GPU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이 인프라는 복잡한 과제의 연산과 AI 에이전트 기반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지원한다. 2026년 하반기까지 AI 플랫폼과 데이터 통합·자동화 기반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또한 2026년부터 매년 약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성원이 다양한 AI 툴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AI 퍼스트의 전사 내재화를 위해 인사제도와 조직 운영 체계도 개편한다. 핵심 전략은 ▲AI 퍼스트 문화 정착 ▲업무 방식·조직 혁신 ▲새로운 도전과 성장 기회 제공의 세 가지 축이다.

크래프톤은 사내 학습 플랫폼 AI 러닝 허브를 중심으로 학습·공유·실험 문화를 조성하고, AI 라운드테이블과 해커톤을 운영해 실무 중심의 AI 활용 생태계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조직 관리 범위를 확장해 구성원이 더 큰 목표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 전문 인력을 위한 맞춤형 인사 체계를 도입한다. 확보된 리소스는 신작 개발과 혁신 프로젝트에 재투자해 AI와 창의성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번 선언을 계기로 크래프톤은 기술·조직·문화 전반에서 AI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경영과 의사결정 전 과정에 AI를 적용할 방침이다.

/최빛나 기자

LG U+, 서버해킹 피해 신고서 제출

"국민적 우려 불식 위해 적극 대응"

LG유플러스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해킹 피해와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23일 해킹이 의심되는 사안을 KISA에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아직 조사에서 명확한 침해 증거는 안 나왔지만, 국회 요구도 있었고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조사에도 성실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1일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은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자리에 출석해 서버 삭제 논란과 해킹 정황에 대한 질의를 받고 KISA 신고 의사를 내비쳤었다. 그는 당시 "침해가 확정돼야 신고하는 것으로 알았다"면서도 "오해를 풀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고를)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월, 세계적인 해킹 전문지 '프랙 매거진'이 LG유플러스 서버 8938대, 계정 4만 2526개, 직원 167명의 정보가 새어 나갔다고 폭로하면서부터다.

KISA는 그보다 앞선 7월에 이미 해킹 가능성을 인지하고 LG유플러스 측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라고 권고했지만, 회사는 따르지 않았다. 결국 과기정통부가 나서 현장 조사를 권고했고,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LG유플러스가 문제의 서버 OS를 8월 12일에 새로 설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증거 인멸을 위해 서버를 폐기한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

/김서현 기자 seoh@

내년 '소주스토리' 스마트팩토리 구축

CJ올리브네트웍스, 전 공정 고도화

농업회사법인 소주스토리 안동소주 스마트팩토리 조감도. /CJ올리브네트웍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소주스토리'의 프리미엄 증류주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회사법인 소주스토리는 120여개 브랜드와 500여종의 세계 와인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는 나라셀라를 모기업으로 두고 있다. 나라셀라는 지난해 한국 소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리미엄 증류주 개발·제조 사업에 본격 진출했으며, 올 8월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농업회사법인 소주스토리 안동소주 스마트팩토리' 착공식을 개최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다양한 스마트팩토리 조성 경험을 기반으로 식음료(F&B) 및 바이오 산업에 특화된 스마트제조물류 기술과 구축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수주는 주류 산업에 대한 기술 경쟁력과 성공 사례를 높게 평가받은 결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원료 입고에서부터 발효, 증류, 저장 및 숙성, 병입까지 전체 공정 과정을 고도화해 원료의 원활한 흐름과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작업자 동선을 설계해 최적의 생산 현장을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객 맞춤형 스마트팩토리 설계 ▲최신 글로벌 인프라 설비 공급 ▲분야별 전문 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소주스토리만의 차별화된 공장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jk1@

LG U+ '익시젠', AI 학회서 인정 받아

'EMNLP 2025'에 채택

논문 집필에 참여한 LG유플러스 구성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기술 '익시젠(ixi-GEN)' 관련 논문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연어처리(NLP) 학회인 'EMNLP 2025'에 채택됐다고 23일 밝혔다.

'EMNLP(자연어처리의 경험적 방법)'는 국제언어학회(ACL) 산하에서 주관하는 세계 3대 자연어처리 학회 중 하나다. 글로벌 주요 연구기관과 기업의 최신 AI 연구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평가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논문에서 소형언어모델(sLLM)의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핵심은 산업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면서도 범용 언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도메인 특화 연속학습(DACP)' 기법이다.

기존 sLLM은 특정 산업에 맞춰 학습하면 일반 언어 이해력이 떨어지고, 범용 성능을 유지하면 산업 적합도가 낮아지는 한계가 있었다. LG유플러스는 DACP를 통해 산업 데이터와 일반 데이터를 균형 있게 학습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실제 통신·금융 분야 테스트에서 기존 모델 대비 성능이 크게 향상돼, 초거대 모델이 아니더라도 실무에 활용 가능한 수준임을 입증했다.

이번 논문 채택은 LG유플러스의 연구가 학문적·산업적으로 모두 높은 완성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서현 기자

네이버, 공간지능 기술로 지도 서비스 혁신

실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과 플라잉뷰 3D 새롭게 선봬

네이버가 네이버랩스의 공간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실내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과 '플라잉뷰 3D'를 새롭게 선보였다. 지난해 거리뷰 3D를 선보인 데 이어, 실제 공간의 이동 경험을 디지털로 확장하며 지도 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는 23일 GPS 없이도 실내에서 정확한 길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실내 AR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카메라로 주변을 비추면 이동 방향이 현실 공간 위에 AR로 표시돼, 복잡한 복합시설에서도 직관적인 이동이 가능하다. 이번 업데이트로 음식점, 카페,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 탐색 UI도 개선됐다.

실내 AR 내비게이션에는 네이버랩스의 공간지능 기술이 적용됐다.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축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과 AI 비전 측위 기술을 통해 GPS가 닿지 않는 환경에서도 이용자의 위치와 방향을 정확히 파악한다.

네이버는 지난 8월부터 네이버 1784와 그린팩토리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기술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코엑스를 시작으로 복합시설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네이버지도는 또한 전국 주요 명소를 3차원으로 탐색할 수 있는 플라잉뷰 3D 서비스를 공개했다. 경주 첨성대, 서울 코엑스,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전주 한옥마을, 부산 벡스코 등 10개 지역에서 우선 적용됐다.

/최빛나 기자